

- 2면 우리는 제대로 만든 휴게실 원한다
- 3면 실전 노동법 /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연차휴가
- 4면 노동안전 칼럼 /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 범죄입니다
- 5면 전국 소식 / 경남 거제 · 통영 · 고성, 충남, 인천 등
- 6면 이주노동자 / 두 미안마 조합원이 이룬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 7면 독자투고 / 오늘도 안전고리 하나에 내 목숨을 맡긴다
- 8면 우리네 맛집 / 함덕해변 맛집 · QR코드 활용 꿀팁

바지락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2년 3·4월 통합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바지락을 건네는 사람들



이번 호 ‘바지락을 건네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사십 대 중반에 조선소 일을 시작해 8년째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나윤옥 조합원입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고되고 위험하다는 ‘발판’ 일을 하면서도 요즘 들어 환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니 동료 하청노동자와 단결하고 단체협약 교섭하고, 임금 30% 인상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위의 법, 헌법이 ▲노동자가 단결하고 ▲단체로 교섭하고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단단하게 단결할수록 위력이 세집니다. 5월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총파업 투쟁을 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함박웃음으로 식당 앞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만나는 우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입니다.

작업 중 쉴 때 제대로 쉬자

현장과 산업단지 휴게환경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사업주는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의무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을 잠깐 멈추는 휴식이 아닙니다. 의자 하나 둔 현장을 휴게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안쪽이 휴게실이라면 오가는 데 쉬는 시간을 다 뺏깁니다. 지하 창고에 휴게실 명판을 붙였다고 휴게실이 아닙니다. 면피용 휴게실은 그만, 노동자가 제대로 쾌적하게, 마음껏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영세하거나 좁은 탓에 휴게실 설치가 어렵다면, 정부나 사용자단체가 지원하는 공용 휴게실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라고 권리마저 작은 건 아니니까요.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 여건 실태와 의견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대책 수립과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우리는 제대로 만든 휴게실 원한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휴게실 설치 전국노동자프로젝트 개시

우리는 힘들고 지쳤을 때 쉬고 싶다는 말을 되뇌입니다.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내려놓는 휴식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엄 보장이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잠시나마 ‘쉬고 싶다’라는 말을 되뇌고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휴식이 더욱 절실한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사업장 규모도 작고, 자본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쉴 공간과 환경이 더욱 절실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 면제하려는 정부

사업주는 2021년 8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의무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노동현장의 휴식권을 좌지우지할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반하며, 휴식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을 배제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공휴일법, 산안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법

이 상시 고용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 17.4명, 사실상 권리 무풍지대

다양한 업종과 노동자가 밀집한 산업단지는 수도권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보기 좋은 거대한 신축 건물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은 열악합니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17.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파트형 공장화를 진행한 서울을 비롯한 안산, 인천, 광주의 산업단지 평균 고용인원은 10명 안팎입니다.

정부 의도대로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면 산업단지는 휴게실 의무설치 무풍지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준과 의무를 제도화해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배제와 차별 조장법, 의무 면제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용휴게실 설치, 노·사 합의 설치, 관리 등 노동자 쉴 권리 보장해야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조건이 명백하면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사용자협의회가 해

당 지역 노동조합과 합의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용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담아야 합니다. 지하나 창고 등에 설치를 금지하고, 온도와 환기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편히 쉬려면 환경관리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와 협의를 통한 설치,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환경 실태조사, 노동자 목소리 모아 정부·지자체에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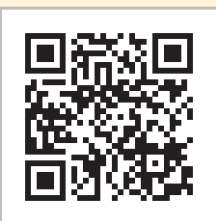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제대로 만든 노동자 휴게실 설치를 위한 전국노동자실태조사’를 합니다. 산업단지 곳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분들께 바나나우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실태와 의견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대책 수립과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노조가입·노동상담
1811-9509

QR코드로 <휴게실 요구> 설문조사



참여한 분들께 <바나나우유 모바일 쿠폰>을 드려요.

● 기간: 3/21 ~ 4/15

<영망진창 휴게실 사진 제보>에 참여하세요



10명 추천해 <모바일 커피상품권> 쏩니다.

● 기간: 3/21 ~ 4/30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연차휴가

[실전노동법] 연차휴가 대체,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으면 위법,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1 연차휴가는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이라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합니다. 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라도 1개월 개근하면 다음 해에 1개월당 1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15일의 기본휴가에 더해,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발생일수]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9년	15년	17년	19년	21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15일의 기본휴가에 더해,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2 휴직·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80% 이상, 1개월 개근 등 출근율이 중요합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달)력상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출근 의무 있는 일수] 중 실제 출근한 일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① 산재 휴업 기간 ② 산전·후 휴가 기간 ③ 유·사산 휴가 기간 ④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이 외에 각종 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등)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 위와 같은 휴직·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근무 때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해당 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나요?

-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노동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가면 해당 단위의 업무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체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4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연차휴가 대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노동자 대표자와(과반수 노조,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해야 하고, 개별 근로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기존 휴일(법정, 약정)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토요일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나 무급휴무일이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여름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① 발생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②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휴가 사용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
- ③ 퇴직·해고 등으로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무료노동상담·노동조합 가입 문의는
1811-9509로 연락해주세요.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 범죄입니다

[노동안전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이름 ‘기업살인법’, 산재 사망 책임 기업에 있어

2022년 1월 24일 끼임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17시 25분경 /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ㄱ(51세) 씨가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2022년 1월 21일 깔림

전북 군산 비응도동 / 20시 35분경 / 건설용 금속 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ㄴ(44세) 씨가 볼트와 너트가 분리되며 떨어진 600kg 연결 판에 깔려 사망.

2022년 1월 21일 화재·폭발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 15시 18분경 / 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화재·폭발 발생. 고립 노동자 네 명 중 세 명은 스스로 대피하거나 구조, 노동자 ㄷ(34세) 씨는 숨진 채 발견.

2022년 1월 20일 끼임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 / 09시 57분경 / 3 코크스 공장에서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ㄹ(39세) 씨가 석탄 운반기기인 장입차량에 끼여 사망. ㄹ 씨는 포스코와 단기계약 맺은 건물설비·설치공사업체 소속, 입사 보름 만에 사고.

2022년 1월 19일 끼임

경기 양주 남면 / 23시 01분경 /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철야 작업하던 노동자 ㅁ(50대) 씨가 기계 투입구 하부에 있는 회전 스크루에 끼여 사망.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소식을 다 달이 모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67명 가운데 공

장에서 돌아가신 다섯 분의 사고 소식을 앞에 적어보았습니다. 사고 시간을 보니 아침, 오후, 늦은 밤,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터에 나온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이 ‘기업살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 ‘기업살인’이라고 부를 때 노동자의 산재를 ‘살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제안에 거부감을 보이는 분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나니 관심을 두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살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사람이 부족해서, 설비가 낡아서, 기계 수리를 미리 해두지 않아서, 신호수가 없어서, 2인 1조 작업을 못 해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돈을 아끼려다, 사람을 덜 쓰려다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사고를 막는 조치를 했다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별칭으로 부르던 이름이 ‘기업살인법’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책임자, 사업주가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라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사고 현장의 실무자나 중간관리자가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하는 경영행위로 보는 법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사업주가 산재를 막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하거나, 한 해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유해 화학물질로 직업병에 걸리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도급이나 용역을 준 경우에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면 사업주가 1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고, 수억 원씩

벌금을 낼 수 있다니 기업들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법의 이름도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

해처벌법으로 바뀌면서 기업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이 법 때문에 경영하기 어려워진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허점투성이 법입니다. 경영책임자,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잘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면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5명 미만을 고용하는 작은 회사에 아예 적용할 수 없고,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회사는 3년 후에 적용합니다. 2020년 산재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일하는 곳보다 사고 발생률이 3.8배가 높습니다. 2020년 88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714명(81%)이고,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작은 회사, 작은 공사현장 산재 발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닐까요?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기업의 범죄로 보는 시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이 개인의 잘못으로 사망한 거로 여겨왔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가 먼저라는 선동으로 노동자의 사망을 큰 문제가 아니라며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노동자가 일하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기업이 책임을 다하면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업에 산재 예방책임을 요구한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수경 _ 〈노동건강연대〉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 소식] 경남 거제 · 통영 · 고성, 충남, 인천 등

경남 거제고조선하청지회 1, 2차 총결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전체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인상 투쟁을 홍보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월 1회 총결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3차 총결기는 3월 25일 12시, 대우조선해양 PDC#1 민주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은 사업장 차별 없이 휴게실 설치. 전국 인증샷 릴레이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작을 이유는 없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전국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 8개 지역에서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함께했습니다.

충남 삼성 SDI 앞 노조 가입 캠페인



충남지부 조합원과 삼성 SDI 노조준비위원회가 삼성 SDI 앞에서 노조 가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타당한 요구를 사업주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시할 때, 우리가 단결하면 행동할 수 있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합시다.

인천지부-인천의료원 건강증진 협약식



지난 1월 20일 인천지부와 인천의료원이 건강증진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공단 영세사업장·미조직 노동자의 건강권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의료원과 협력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약 결과, 인천지부 조합원과 인천지부가 의뢰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20% 할인, 건강검진·예방접종 시 협약 단가를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간다운 '쉼'을 보장하라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법이 생겼습니다. 휴게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한 번 살펴볼까요?



▲ 관련 글은 2면에 있습니다.

일터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카톡 채널 추가해 무료 노동상담 받고, 소식도 받아보세요.
#직장갑질 #해고 #임금체불 #인권침해 #고용불안



※ 홈페이지 주소 : 공단노조.com

[인천] 공단 수다방에 초대합니다

오픈카톡채팅방 부평공단 수다방과 남동공단 수다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평공단노동자누구나 #남동공단노동자누구나 #권리찾기 #무료법률상담 #사업장위법행위제보 #노동조합가입문의 #익명보장



부평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부평공단수다방



남동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남동공단수다방

두 미얀마 조합원이 이룬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이주노동자] 작은 컨테이너 기숙사, 상시 언어폭력 ...

인간 존엄성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 단체협약 체결

“구멍이 숭숭 뚫린 컨테이너 기숙사 비용이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사장과 관리자가 우리에게 ‘××새끼야’라고 욕합니다.”

부산의 매트리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 두 명이 금속노조 서부산지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바로 앞 공장 미얀마 노동자 여섯 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교섭하고 회사 앞에서 집회하며 목소리 높여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다.

열세 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고, 이주노동자는 여섯 명이다. 다른 국적의 노동자 네 명은 노조에 가입했다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선불리 가입하지 못했다. 한국인 노동자가 몇 명 있지만, 노동조합을 함께 해보자고 소통하긴 어려웠다. 결국, 두 이주노동자 조합원과 함께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을 거듭했지만, 사업주는 누가 봐도 썩어 부스러진 컨테이너 기숙사를 고수했고 이용료도 포기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함께 회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다. 두 미얀마 조합원도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마이크를 잡고 씩씩하게 항의했다.

이날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언어폭력 중단하라’, ‘우리도 인간이다’, ‘노동자는 하나!’, ‘제대로 만든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라’, ‘욕하지 마’ 등이었다. 이 집회 후 사용주는 기숙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했다.

파업에 관해 고민도 했지만 두 명의 조합원으로 많은 힘을 낼 수 없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들 뒤편에 보이는 2층 컨테이너에서 미얀마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까지 재계약 · 재고용 보장 (고용허가제 통해서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 가능)
- ▲언어폭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난방, 냉방, 온수가 나오고 실내에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기숙사 제공
- ▲산재 요양 중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와 별개로 생계보조비(기본급의 30%) 지급
- ▲사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1인당 연간 6시간 교육 시간 보장
- ▲연간 안전보건 교육 중 4회는 노동조합이 강사 선정하여 실시 등이다.

임금인상을 이루지 못해 숙제로 남았지만, 차근차근 바뀌나갈 것이다. 임금인상만큼 조합원들의 가장 큰 요구인 기숙사 이전과 계약연장 보장, 욕설 금지를 관철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일하면서 느끼는 부당함을 노동조합을 통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무엇보다 값진 결과다.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

김그루 _ 서부산지회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주노동 인권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Facebook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농업노동자가 상담하면 통역활동가가 상담내용

을 정리하고, 이주노동활동가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분류한 후 법률전문가가 자문과 조력을 진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는 망설이지 말고, Facebook에서 ‘캄보디아농업노동자119’를 검색 후 게시물 또는 메시지로 문의해주세요.

[독자투고] 오늘도 안전고리 하나에 내 목숨을 맡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도, 회사가 지시하면 ‘안전고리’ 하나에 목숨을 맡긴 채 허공에서 위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조선소노동자의 일상이다.

회사는 맨날 규칙 지키라고 하고, 사고 나면 노동자 부주의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애초에 위험작업을 금지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는 방법임을 회사라고 왜 모르겠는가.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회사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2022년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는 웬만한 빌딩보다 큼니다. 큰 배를 보면서 저 배는 누가 어떻게 만드나 짐작도 못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도 우리 노동자 손을 거치지 않으면 바다에 나갈 수 없지요. 이런 배가 태평양, 대서양 같은 큰 바다를 가로질러 운항하는 영상을 보면 괜스레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노동자의 삶은 웅장하지 않네요. 안전고리 하나에 의지해 허공과 닮은 곳에서 서커스 하듯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노동자의 산재 사고,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 ‘조선 강국’이니 ‘선박 수주 1위’니 하는 정부와 회사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독자투고였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한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독자분께 8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
방법

이메일

liandai21@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주도 가벼운 두박이 여행. 함덕해변 가자

[우리네 맛집] 제주 함덕해변 '해녀김밥 함덕본점', '흑본오겹 함덕점'

코로나 19 이후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 그중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 시기만 잘 맞추면 비행기 티켓값, 숙박비, 차량 대여비 모두 저렴할 때도 있지만 말처럼 쉽진 않다. 특히 차량 대여비는 2년 새 네 배가 뛰었다.

나처럼 '느림'을 지향하는 가벼운 여행객에게 제주 함덕해변은 안성맞춤인 곳이다. 제주 공항에서 한 번에 가는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한다. 깨끗한 숙소가 많고 음식점, 카페, 편의점이 모여있어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함덕해수욕장에 물놀이나 서핑하는 사람이 많지만, 바다가 예뻐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걷기를 좋아하면 제주 올레길 19코스를 따라 서우봉에 오르길 추천한다. 아름다운 함덕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운이 좋으면 야트막한 언덕에서 말들이 풀 뜯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일몰 뷰 맛집이라고 하니 해지는 시간에 맞춰가는 게 좋겠다.

제주도야 워낙 맛집이 많고 맛집 정보가 많다. 그중 '해녀김밥 함덕본점'은 제주도 여행 초심자에게 추천할만하다. 해산물 가득한 김밥에 성게 미역국이나 깔끔한 전복 해물라면을 취향껏 골라 먹으면 맛있고 배부른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봄비는 시간을 피하면 탁트인 함덕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제주를 만끽하며 식사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한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이다.

함덕 바닷가에서 서쪽으로 제주 올레길 19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제주 특유의 검은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보리밭이 넓게 펼쳐있다. 특히 4월 제주의 푸른 보리밭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듯하다. 돌



아오는 길에 '흑본오겹 함덕점'에 들러도 좋다.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고기 질이 좋고 맛도 깔끔해서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다.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90
오션그랜드호텔 1층 해녀김밥 본점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54
흑본오겹 함덕점

이희태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QR코드 활용 꿀팁

코로나 19 세계 유행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QR코드'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QR코드로 출입 인증하셨죠? 그동안 내 QR코드를 찍히기만 했다면, 이제 내가 QR코드를 찍어봅시다. 카톡이랑 유튜브만 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는 방법]

1단계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후면 카메라로 설정합니다.

2단계

스마트폰 렌즈로 아래 QR코드를 비춥니다.

3단계

폰이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상단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4단계

알림을 누르면 QR코드 연결 링크가 열립니다.



2022년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내용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PDF 파일로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바지락> 다시 보기

- ▲ 2021년 11, 12월호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시행, 이렇게 대처합시다> 등
- ▲ 2022년 1, 2월호 <노동자가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등

지난 <바지락>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온라인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싶다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을 시행합니다. '영망진창 임금명세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신문 <이주노동자 바지락>

주변 이주노동자 동료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벵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한국어로 제작했습니다.